



농심
케데헌 효과에
글로벌 반등 신호탄
L1

metro®

Life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경쟁 치열
상업화 속도
L2



어른들의 추억, 아이들의 미래로... 잔디 위 ‘꿈의 축제’ 열다



넥슨

넥슨이 ‘아이콘매치2025’를 통해 유소년 축구 지원과 세대 교류를 확대하며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다. 자사 대표 축구 게임을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무대는 단순한 팬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젝트 ‘그라운드.N’과 연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회를 넓히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축구 축제를 현실에서 실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게임회사가 마련한 대규모 이벤트, 아이콘매치2025

넥슨이 개최한 아이콘매치2025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막을 내렸다. 전날 이벤트 매치에는 3만8426명이 입장했고, 14일 본 경기에서는 6만여 석이 전부 매진됐다. 이틀간 10만 명이 몰리자 “게임사가 마련한 무대가 이처럼 큰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현장에서 나왔다.

경기장 밖은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축구 유니폼을 입은 청소년, 부모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 해외에서 원정 온 팬들까지 다양한 국적과 세대가 모였다. 일부 팬들은 ‘#아이콘매치2025’ 해시태그를 달고 현장 인증 사진을 올리며 SNS를 달궜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타 선수들이 몸을 풀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호나우지뉴가 특유의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따돌릴 때, 웨인 루니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트를 시도할 때, 티에리 앙리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호흡을 맞추며 전진할 때마다 경기장은 폭발적인 환호에 휩싸였다.

2000년대 세계 축구의 상징적 장면들이 눈앞에서 재현되자 관중들은 “이 장면은 게임 속 카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외쳤다.

아이콘매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 속 아이콘들이 실제 경기장에서서는 경험을 구현했다. 그 자체가 문화적 상징이 됐으며, 현장은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변모했다.

◆유소년 축구 지원과 사회적 가치

넥슨이 이번 아이콘매치를 통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젝트 ‘그라운드.N’을 운영하며 한국 축구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공을 들여 왔다.

그라운드.N의 핵심 프로그램인 ‘스토브리그’는 겨울마다 열리는 집중 훈련 캠프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콘 매치2025’에는 6만여 명의 관중이 몰리며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된 ‘아이콘 파크’ 체험존에서 한 시민이 체험을 하고 있다.



2-1로 승리한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뉴시스

자사 축구게임 기반 ‘아이콘매치’ 개최 단순한 이벤트 넘어 사회적 가치 구현

유소년 축구 지원 ‘그라운드.N’ 연계 어린 선수들에 세계축구 경험 기회

세대·국적·문화 아우르는 교류의 장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로, 국내 초·중·고교 선수들이 참가해 체력 강화와 기술 훈련, 전문 코치진의 멘토링을 받는다.

2025년 열린 4회차 스토브리그에는 해외 유소년 팀까지 초청해 국제 교류전을 진행했다. 어린 선수들이 세계 축구를 직접 경험하고 또래들과 경쟁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에서 보던 스타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동시에 직접 훈련 기회를 얻는 경험이 큰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넥슨은 “지원금을 나눠주는 후원이 아니라 선수들이 몸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이

는 유소년 지원을 단순한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ESG 활동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병무 넥슨 부사장은 “아이콘매치는 FC 온라인과 FC모바일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무대”라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이야말로 넥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팬 이벤트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소년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에 기여하고, 세대 간 문화를 연결하는 점에서 넥슨의 행보는 ESG 경영의 사회(S) 영역과 맞닿아 있다. 기업이 게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아이콘매치는 ESG 전략의 일환으로 읽힐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세대 교류 가능성도

이번 행사가 단순한 흥행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축제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장에는 젊은 게이머들뿐 아니라 은퇴한 스타들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중장년층 팬들도 대거 몰렸다.

한 관객은 “아버지가 열광했던 선수를 아들과 함께 본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눈에 띄

게 많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이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된 ‘아이콘 파크’ 체험존도 인기였다. 미니게임과 포토존, 굿즈 판매,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팬덤이 어우러졌다. 상암 일대 상권은 이틀간 몰려든 관중 덕에 활기를 띠었고, 숙박·교통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는 게임사가 주최한 행사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콘매치2025는 이처럼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한 새로운 문화적 실험이자 사회적 가치 창출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과제도 남는다.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구체적 연계, 관람객 접근성 확대가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흥행이 일회성에 그칠지, 아니면 넥슨이 ESG 전략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아이콘매치2025는 단순한 ‘게임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실험’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게임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5강 싸움’ 삼성-롯데, 정면승부… ‘선두 추격’ 한화, 운명의 8연전 /사진 뉴시스
▲KPGA 노조 “부당 해고된 직원들 복직할 때까지 투쟁”

▲‘양다리 스캔들’ 사카구치 켄타로,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취소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 없다’, 토론토영화제 국제관객상 수상

▲‘韓 국가대표’ 카스트로프 입지 반전 기대감, 소속팀 감독 ‘경질’ 위기
▲‘43연승’ 전설의 엇박서 리키 해튼, 13년만 복귀전 앞두고 사망